

장미의 유혹 “조선대로 오세요”

오늘부터 3일간 장미원서 장미축제

세계민속댄스 공연·각종 체험행사

전국적인 명소 사랑받고 있는 조선대학교 장미원에서 무르익은 봄의 향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미축제가 열린다.

총면적 8299㎡, 227종 1만7994주의 장미가 다무어 피어나는 장미원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8회 장미축제’는 화려한 축하공연과 다양한 체험행사로 지역민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 장미축제에는 일본 고베 가쿠인대학 오카다 요시오 총장, 산요 가쿠엔 대학 아카기 총장 부부, 와세다 대학 오쿠시마 다카야스 전 총장 부부, 재미작가 김보현 화백 등 국내외 귀빈들이 대거 참석하며 언어교육원 존 잭슨 교수의 장미 사진전,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원생들의 다례 시연 및 시음,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박물관(관장 이기길)이 마련한

특별전 ‘은봉 안방준 가 소장유물 특별전’이 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28일까지 열리고, 미술관(관장 박상호) 특별기획전 ‘김보현-자연의 속삭임’도 26일까지 미술관에서 열려 관객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장미원 홈페이지(http://rose.chosun.ac.kr)에는 사진 콘테스트 게시판을 개설해 올린 작품 가운데 우수작을 시상하는 장미원 홈페이지 디지털 사진콘테스트가 열리며, 외국어대학 학생들이 세계의 민속무용을 선보이는 세계민속댄스공연도 장미축제에서 뽐낼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제8회 장미축제 행사를 소개한다.

◇개막식 및 축하공연(14일 오후 6시~8시30분)=오후 6시 커팅식 이어 전호중 총장 환영사, 신흥수 총동학회장과 와세다 대학 오쿠시마 전 총장 축하사에 이어 축하공연

이 펼쳐진다.

팝페라 가수 이사벨이 축하공연의 서막을 장식하며 체육대학 학생들의 태권무 시범공연, 평생교육원의 라틴댄스, 앙쉬 클라리넷 초청공연, 통기타와 우리춤 공연, 외국어대 아랍어과 학생들의 댄스, 3인조 음악공연팀인 생애조이 음악 공연에 이어 불꽃놀이로 성대한 축하공연을 마무리한다.

◇학생·시민공연(15일 오후 6시)=장미원을 찾은 관객과 조선대 재학생들의 신명나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강진녀 재즈댄스를 시작으로 조선대 학생 공연, 시민 장기자랑대회, 조선대 의장대의 총검술 및 댄스, 통기타 4인조 소리섬 사립들 공연, 학생 2인조 합창공연,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외국어대학 세계민속댄스 공연(16일 오후 6시)=프랑스어과의 강강 및 테크닉 공연을 비롯하여 중국어문화학과와 전통 가무, 스페인어과의 바일레, 독일어과의 왈츠, 일본어과의 파라파라, 아랍어과의 댄스, 러시아어과의 마르쉬 등 세계 각국의 민속춤이 화려한 불거리를 선사한다.

◇체험행사(15~16일)=장미원 입구에 체험부스를 설치해 미술대학 창업동아리 ‘우리손길’의 천연 염색 장미수건, 종이장미 만들기, 평생교육원의 장미 리스 만들기, 어린이 Book-Art, 가운츠기 등 장미를 소재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례 시연 및 시음(14~16일)=장미원에 지어진 전통정자 서림정에서는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원생들이 다례 시연 및 무료 시음 행사를 갖는다. 14일과 16일은 오후 4시~6시, 15일은 오후 1시 20분~4시까지 열리는 행사에서는 세계의 차 문화를 공부하는 국제차문화학과원생들의 다례 시연과 함께 녹차, 황차, 홍차, 말차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장미시진전(14~16일)=장미원 입구의 체험부스에서 조선대 언어교육원 존 잭슨 교수가 장미원을 촬영한 사진 30여점을 선보인다. 30여년 동안 한국에 거주해온 존 잭슨 교수는 장미원을 비롯한 남도의 풍광을 사진에 담은 사진작가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혈모세포 기증캠페인 동신대 동아리연합회는 12~14일 한미당 축제를 개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 하자는 의미로 조혈모세포 기증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동신대 제공>

■ 수능 탐구영역 과목 선택과 공부법

목표 대학 반영방법·과목수 숙지 우선 연관성 높은 과목 묶어 선택하면 유리

올해 대입에서는 탐구영역 반영 과목수를 줄이는 대학이 늘어난다. 과목수가 줄어들면 영역별 반영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대입전문업체 진학사의 도움으로 탐구영역 과목 선택 및 공부법에 대해 알아봤다.

◇대학별 탐구영역 반영 과목수 확인=연세대와 숙명여대는 올해 정시 모집에서 한 과목을 축소해 2과목만 반영한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탐구영역 최대 3과목 선택, 2014학년도 탐구 2과목 선택 등 변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고려대·건국대·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한국외대 등도 2과목을 반영할 방침이다.

반면 서울대·광주교대 등은 탐구영역에서 4과목을 모두 반영한다. 전

남대 등도 기존 3과목 반영을 유지한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 중 서울대 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4과목을 모두 공부할 필요는 없다. 탐구반영 과목수가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성적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반영 과목수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과목을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탐구영역의 반영 과목수 축소로 반영 비중을 낮춘 대학도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대체도 가능=제2외국어·한문을 지정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은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과목간 연관성 고려=사회탐구는 지리과목군(한국지리·세계지리·

경제지리), 일반사회군(정치·경제·사회문화·법과사회), 역사과목군(국사·한국근현대사·세계사), 윤리 등 크게 4개 과목군으로 나뉜다. 같은 군에 포함되는 교과목은 일정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있거나 공부하는 방법이 비슷한 경우도 있다. 과학탐구 역시 I 과목의 일부 개념이 II과목으로 연결되는 등 연계학습이 가능하므로 연관성이 높은 과목끼리 묶어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목을 선택할 때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는지, 본인이 자신있는 과목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희망전공이 있는 경우 공부보다 수월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또 자연계열의 경우 II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진학하게 되면 대학진학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대인 큰 잔치’ 광주여대 송강제전

학생 3000여명 참가

지역 유일의 여자대학인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가 여대인들만의 큰 잔치인 ‘2010 송강제전’을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새로이 개장한 대학 천연잔디운동장에서 23개학과 3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여대 송강제전은 매년 열리는 여대인만의 큰 잔치로 총학생회와 학우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우관계를 증진시키기 교수 및 교직원과

함께하는 한미당 축제로 체육행사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새로이 개장한 천연잔디운동장에서 개막식과 체전, 폐막식 행사를 치러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개막식 직후 펼쳐진 스승의날 행사는 참가한 모든 학생과 교수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특히 체육행사 외에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지방 및 혈압 측정, 자궁암 예방홍보, 성교육 행사 등이 펼쳐져 학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채희종기자 chae@

조선대, 모바일 1인 기업 양성 거점

중기청 ‘앱 창작터 지정·운영’ 기관 선정

조선대학교가 세계 모바일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앱스토어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양성 및 인프라지원’ 거점으로 육성된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행남)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사)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앱(App) 창작터 지정·운영’ 기관(총괄책임자 정현숙 교수)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연구비 5억원을 지원받는다.

중기청은 스마트폰 및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의 빠른 확산에 발맞춰 모바일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경쟁력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앱창작터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전국 54개 대학 가운데 수도권 5개 대학과 지방 5개 대학과 1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조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됐다.

조선대학교는 오는 6월부터 스마트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교육 및 개발지원, 개발자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을 통해 앱(App) 개발자를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하는 ‘앱(App) 창작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中 청운한국학교와 교생실습 협정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가 해외 교생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전남대 김윤수 총장은 최근 중국 청나오를 방문, 청운한국학교(교장 김효중)와 교생실습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올 하반기부터 청나오 청운한국학교에 교생실습 학생들을 파견할 예정이며, 실습생들은 수업장관·외국어 습득·문화교류 등을 통해 국제 교육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전남대는 또 청운한국학교 졸

업생을 특례 입학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수 총장은 “해외 교생실습은 세계 교육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국제적 교수 방법 등을 배움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천도제

관음기도도량 불명사(주지 불명스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기를 맞아 5월 15일 오전10시부터 광주 국립 5.18묘역 '역사의 문'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한 특별 천도제>를 영산재로 봉행합니다.



대한민국 5월 15일은 민주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기를 맞아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한 영구적인 국가정신을 확립하여 민족심혼 고상과 국격으로 민족의 영광과 번영에 생동력을 불어넣기를 기원합니다.

● 천도제는 사립관세 불명사(주지 불명스님)소속 스님들이 영산재 의식으로 5.18 영령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15일 (토) 오전 10시~13시 ■ 장 소 : 광주 망월동 5.18 묘역 '역사의 문'

■ 주 관 : 서울 종로구 관음기도도량 불명사 (02) 732-0835

■ 후 원 : 광주불교방송 | 시대전우문화재단 | 남도매일 | 뉴스파이어 | 에디뉴스 | 코리아뉴스 | 호남매일 | 호남신문 | 희망일보 | CNA21

----- 불명사